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1 - 2 (2호)
안전유형	심의

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(2021~2025)

2021. 1. 27.



차 례

I. 수립배경 및 한계	1
II. 추진 방향	2
III. 중점 추진과제	3
1. 생활화학제품 관리 고도화	3
2.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 정착화	4
3. 제품 전과정 관리 이행체계 마련	5
4. 안전관리 기반 확립	6
IV. 향후 추진일정	9

1. 수립배경 및 한계

1 수립배경

-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
 -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, 화학제품안전법)」 제정('18.3월, '19.1월 시행)
- 법 시행 후,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 성과 및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(1차, '21~'25) 수립
 -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에 대한 높아진 소비자 인식과 안전성 강화 요구 증대를 반영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

2 제품 관리 한계

- 제품 시장이 빠르게 변화 → 안전기준 설정과 사후관리 한계
 - 신유형 제품의 검증 없이 허위 과대·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우려
 - 시장의 변화에 맞는 안전관리체계(기준 정비, 제도개선 등) 재정비 필요
 - 정부 주도 안전관리에서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로 책임성 강화 필요
-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의 연착륙 필요 → 승인지원 인프라 부족
 - 승인자료 준비기간 부족 및 확보 한계, 비용부담 등 승인 어려움 호소
 - 차질없는 물질승인을 위한 평가역량 강화 및 산업계 지원 확대 필요
- 제도 이행 주체별 안전관리 이행 역량과 소통·협력 부족
 - 신고·등록·승인, 화학물질·제품 유·위해성 정보·평가 등 관련 조직 및 업무수행의 분절화로 정책 목적 달성에 한계
 - 제도 인식이 저조한 산업계에 대한 제도 이행지원 요구 증대
 -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공개 및 소비자 눈높이 교육, 홍보 등 필요

II. 추진 방향

비전

화학제품의 더 안전한 제조·소비 문화 정착

전략
목표

1.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체계 완비
2. 제품의 제조·유통·소비 **전** 과정 안전관리 고도화
3. 이해관계자 소통·협력 확대 및 안전관리 혁신기반 확립

4대 추진전략

중점 추진 과제

① 생활화학제품
관리 고도화

- ①-1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확보 및 위해성 평가 체계 강화
- ①-2 안전관리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세분화
- ①-3 방역용 소독제·살충제 등 안전관리 및 검증 강화
- ①-4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마련
- ①-5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문화 확산

② 사전예방적
살생물제 관리
제도 정착화

- ②-1 살생물물질의 조기 안전성 확보
- ②-2 살생물제 승인·평가 기반 구축
- ②-3 산업계 제도 이행지원 확대
- ②-4 생활밀접형 및 신유형 제품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

③ 제품 전과정
안전관리 이행
체계 마련

- ③-1 위해 및 불법 제품의 시장진입 원천차단
- ③-2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감시체계 강화
- ③-3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 구축
- ③-4 불법 제품 감시 및 관리감독 효율화

④ 안전관리
혁신기반
확립

- ④-1 화학물질제품 전문기관 설립 추진 등 관리역량 강화
- ④-2 화학제품 통합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
- ④-3 대국민 제품정보 제공 확대 및 소통·협력 다각화
- ④-4 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안전관리 기술개발
- ④-5 관계기관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

III. 중점 추진과제

1

생활화학제품 관리 고도화

- ◆ 안전관리 정보 확보, 위해성 평가 강화를 통한 관리대상 품목 확대
- ◆ 방역용 소독제,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 대응
- ◆ 기업-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

- (관리 대상)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확보, 위해성 평가체계 강화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세분화
 - 화학물질 독성정보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, 소비자의 제품 사용행태 조사·분석체계 마련
 - * 독성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독성정보 예측 방법론 도입·활용방안 마련
 - 현행 관리품목 내 신규물질·제형 등에 대한 안전기준 재정비 및 비관리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상 품목 확대 지정
 - * 점점 다양해지는 제품의 유형과 용도 등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안전기준 마련
- (이슈 대응) 방역용 소독제,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
 - 코로나-19 이후,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성 검증 및 신속한 승인심사 추진, 불법제품 감시 및 위해소통 강화
 -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로드맵 수립 후, 제품표시 의무, 사용내역 보고, 사용금지 제품 고시 등 관리방안 마련·시행
- (자발적 관리) 정부-기업-시민사회간 협업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유해물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책임성 강화
 - 기업의 자발적 제품 전성분 공개,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 저감 등을 위한 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” 참여기업 확대
 - 기업 안전관리 노력 전파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“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” 도입·운영 지원

- ◆ 국제 평가 물질의 승인 간소화, 정부 검증 등 살생물제 조기 안전성 확보
- ◆ 원활한 승인·평가 이행을 위한 기반 확대·구축 및 산업계 이행 지원
- ◆ 승인유예기간 도래 전, 신유형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 해소

- (조기 안전성) 국제적 승인이 완료된 물질의 국내 유통 실태조사(성분, 용도, 노출 정보 등)를 통해 승인을 간소화 및 조기 안전성 검증
 - 정보 확보의 시급성, 용이성, 물질의 사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살생물 물질 유해성 정보를 정부가 직접 생산 지원 및 DB 구축
 - 국제적으로 승인(평가)이 완료된 물질의 일부 제출자료 면제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승인을 통한 안전성 확보
- (승인 평가 이행) 승인·평가기반 구축 및 산업계 제도 이행지원 확대
 - '22년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물질이 집중됨에 따라, 안정적이고 원활한 승인평가 이행을 위한 인적·물적 인프라 구축
 - 산업계 승인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 구성·운영하고, 중소기업 대상으로 승인 단계별 준비사항, 자료 작성 범위·방법 등에 대한 맞춤형 1:1 컨설팅, 전과정 지원(협업체, 승인전략, 자료작성 등)
 - 승인평가 완료된 물질의 정보를 시스템에 공개하여 하위사용자인 제품 및 처리제품 업계에 제품승인에 필요정보 제공
- (관리공백 해소) 승인유예기간 도래 전, 안전성 미검증 살생물제 유통 우려에 따라, 생활밀접형, 신유형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 강화
 -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후, 국민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검증 및 고위해 제품 회수 등 안전관리 추진
 - 현장발생 및 미생물 등 신유형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
 - 항균처리제품(살생물처리제품)의 살균·소독제로의 효과·효능의 과대 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표시기준 강화 등 안전관리체계 마련

3

제품 전과정 관리 이행체계 마련

◆ 제품 출시 초, 위해제품을 사전 차단하고, 출시 後,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과정 관리·감독 이행체계 견고화

◆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 마련

- (제품 출시 前) 위해제품을 先 차단하는 사전예방 관리체계 구축
 - 온라인 판매중개·구매대행자의 제품 판매 중, 적법제품 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시간 확인시스템 운영
 - 위해 가능성이 큰 용도의 원천적 금지 등 품목별 용도기준 개선 및 검증되지 않은 효과·효능의 표시·광고 금지 등 기준 강화
- (제품 출시 後) 위해우려제품의 신속한 유통 차단, 안전성 조사 강화, 시장감시단 운영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감시체계 강화
 -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경우, 위해성평가 이전 행정조치 (제조·수입금지, 판매차단 등)를 위한 법적근거 및 매뉴얼 마련
 -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수 지속 확대 및 시장감시단 모집·운영,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한 소비자 주도 시장감시 강화
- (예방·대응)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 구축
 -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조사,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 -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, 응급의료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'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' 설치 또는 지정
- (관리 효율화) 불법 제품의 신속, 원할한 행정조치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, 행정조치 기능 강화,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 정비
 - 위반유형을 세분화하고, 차등 처분하는 규정 마련,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침 제정 등 관리감독 체계 개선
 - 사이버조사단 신설, 법률자문단 구성 등 유역지방환경청의 불법 제품 관리·감독 기능을 강화

4

안전관리 기반 확립

- ◆ 화학물질·제품 전문기관 설립, 제품 정보 통합관리 등 관리역량 강화
- ◆ 대국민 정보 제공 소통·협력 다각화, 관계기관·글로벌 협력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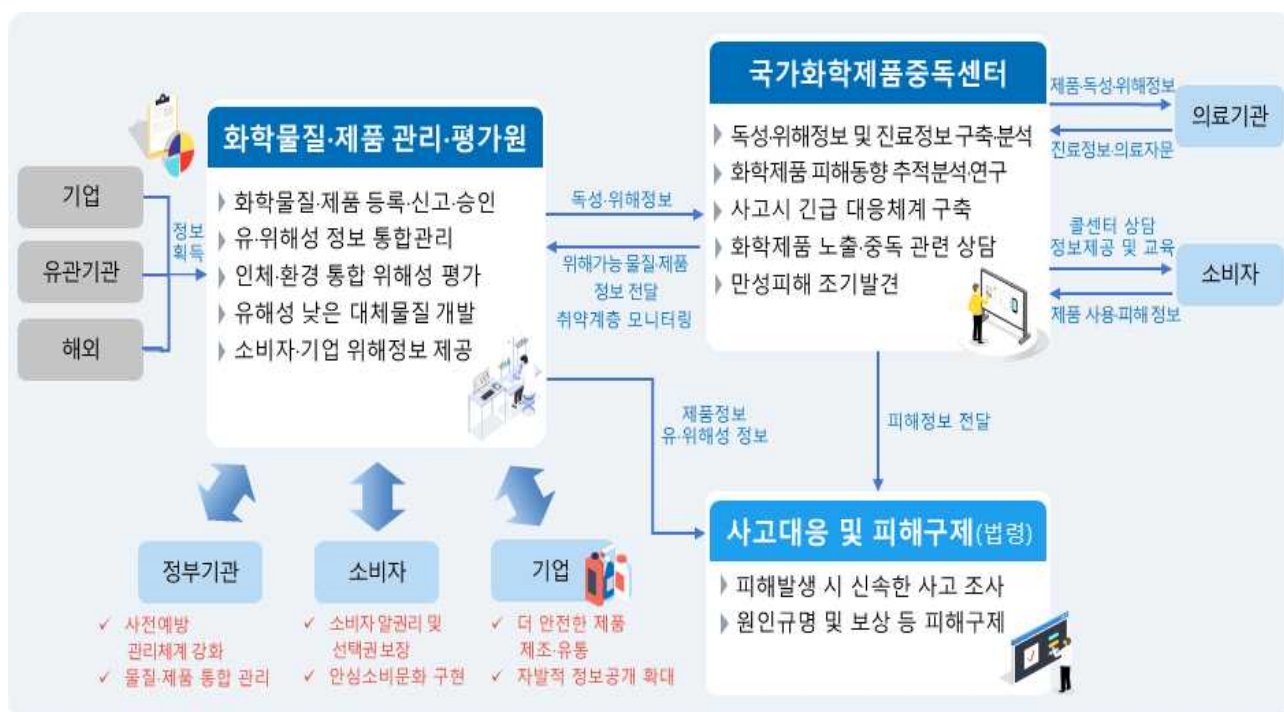
- (관리역량) 전문기관 설립, 통합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리 등
 - 물질·제품 확인 부터 사후관리까지 화학제품 관리를 전담하여 일괄 수행하는 '화학물질·제품 관리평가원' 설립 추진
 - * 전세계적인 화학물질·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를 선도하는 유럽의 화학물질청(ECHA)을 모델
 - 개별 시스템*의 고도화·연계를 통한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물질·제품의 통합 안전성 확보체계 마련
 - * 화학제품관리시스템(업무처리),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(정보수집·공개)의 고도화
- (대국민 소통) 대국민 제품정보 제공 확대 및 소통·협력 다각화
 - 소비자 대상 화학제품 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살균·소득제 안전사용 방법 홍보·안내, 안전교육 시민강좌 개설, 학교 현장 교육* 등 실시
 - * 화학제품안전교육프로그램 제작 배포, 어린이 화학안전캠프 등 교육과정 개발·운영
 - 기업 담당자(예비인력 포함) 교육 프로그램 발굴, 중소기업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 확대
 - * 시험검사비용 지원, 전문컨설팅 추진, 유해성 시험자료 저가 제공 등
 - 살생물제 관련 다각적인 이해 관계자간의 위해성 커뮤니케이션 (Risk communication)에 대한 주기적인 대화의 場 마련
- (기관간 협력) 국내 유관기관과의 합동 감시, 글로벌 협력 제고를 통한 다양한 정보교류 추진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
 - 비관리 제품, 신종 위해제품, 융·복합 제품 등의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해 주요 제품관리기관 간 합동 감시·관리체계 마련
 - 국외 주요 전문기관과 화학물질·제품 관련 정보교환, 전문인력 교류 등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

- ASEAN 등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의 화학물질·제품 관리제도 전파 및 협력방안 마련
- K-방역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제조 화학제품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, 온라인 전시회 개최 등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

□ (R&D) 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안전관리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추진

-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, 사용환경기반 노출평가 기술,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
- 척추동물대체시험법(非동물시험법) 개발, 살생물제 위해성 평가 노출 시나리오·계수 및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 기술개발
- 미세플라스틱 측정·분석기술 및 거동평가 기술 개발, 미세플라스틱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대체소재·물질, 제품 개발 등
- 살생물제의 유형별 위해성 평가 노출시나리오, 노출계수 및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시험방법 마련 기술개발

<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체계도>



참고

종합계획 수립 · 이행으로 달라지는 점

국 민(소비자·시민사회)
화학제품의 더 안전한 제조·소비 문화 정착

정책 방향	현재(~'20, As-Is)	종합계획 이행('21~'25)	달라지는 점(To-Be)
	<p>「화학제품안전법」 시행('19.1월) 안전관리 체계 구축</p> <p><생활화학제품> ▷ 세정제, 표백제 등을 관리(신고)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 표시 기준 마련('15.4월~) * ('15) 8개 → ('20) 39개</p> <p><살생물제> ▷ '19.1월, 살생물제 승인제도 시행 * 사용빈도, 유·위해성 정도에 따라 승인유예기간 차등 부여 * 승인지원 전담팀 구성</p>	<p>화학제품 관리체계 고도화 / 제품 소과정 안전관리 체계 마련 / 안전관리 기반 확립</p> <p>▷ 관리대상 품목 확대 및 기준 강화(강)</p> <p>▷ 위해·불법 제품 원천차단(新)</p> <p>▷ 방역용 소독제 등 안전검증 강화(新)</p> <p>▷ 제품 전 성분 공개 확대(강)</p> <p>▷ 제품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(新)</p> <p>▷ 더 안전한 제품 자율 인증제(新)</p> <p>▷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규제(新)</p> <p>▷ 화학제품 피해 구제 법령 개정(新)</p> <p>▷ 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 설치(新)</p> <p>▷ 화학물질·제품 관리평가원 설립(新)</p> <p>▷ R&D 투자 확대(강)</p> <p>▷ 글로벌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(新)</p> <p>▷ 유해성 정보 확보·생산 지원(강)</p> <p>▷ 산업계 제도 이행지원 확대(강)</p> <p>▷ 국제적 승인 물질 안정성 평가(新)</p> <p>▷ 안정성 평가 기반 및 역량 강화(강)</p> <p>▷ 신유형 제품 안전관리 先 추진(新)</p>	<p>▶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</p> <p>▶ 안전성 검증 제품의 유통, 소비자 위해 사전예방</p> <p>▶ 국민 알권리 강화</p> <p>▶ 안전한 제조·소비 문화 확산</p> <p>▶ 환경 보전에 선제적 기여</p> <p>▶ 피해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보상</p> <p>▶ 사고 시 긴급 대응체계 구축</p> <p>▶ 유·위해성 정보 통합관리</p> <p>▶ 인체·환경 통합 위해성 평가</p> <p>▶ 소비자·사업자 위해정보 제공</p> <p>▶ 유해성 낮은 대체물질 개발</p> <p>▶ 안전국가 위상 제고</p> <p>▶ 살생물제 안전관리 정착</p> <p>▶ 살생물물질 조기 안정성 확보</p> <p>▶ 원활한 제도 이행체계 마련</p> <p>▶ 승인유예 기간 내 안전관리</p>

기업	정부	시민사회
<p>(As-Is) 안전표시기준 준수, 유해성 정보 부재, 제한적 정보 공개</p> <p>⇒ (To-Be) 더 안전한 제품 제조·유통, 유해성 정보 생산·확보,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</p>	<p>(As-Is) 사후관리 차증, 규제 이행 모니터링 규제 강화 집중 유해성 정보 확보</p> <p>⇒ (To-Be)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, 기업제도 이행지원,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, 통합 유위해정보 제공</p>	<p>(As-Is) 안전관리 제한적 참여</p> <p>⇒ (To-Be) 예방적 안전 선도, 안전관리 협력 파트너(자발적 시장 감시, 안전의식 교육, 홍보)</p>

I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과제	관련부처	추진시기
전략 ① 생활화학제품 관리 고도화		
1.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확보 및 위해성평가 체계 강화	환경부	'21 ~ '25
2. 안전관리 대상품목 확대 및 기준 세분화	환경부	'21 ~ '25
3. 방역용 소독제·살충제 등 안전관리 및 검증 강화	환경부	'21 ~ '23
4.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마련	환경부	'21 ~ '25
5. 기업의 유해물질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	환경부	'21 ~ '25
전략 ②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 제도 정착화		
1. 살생물물질의 조기 안전성 확보	환경부	'21 ~ '25
2. 살생물제 승인·평가 기반 구축	환경부	'21 ~ '23
3. 산업계 제도 이행 지원 확대	환경부 중기부	'21 ~ '25
4. 생활밀접형 및 신유형 제품 안전관리 방안 마련	환경부	'21 ~ '25
전략 ③ 제품 전과정 안전관리 이행체계 마련		
1. 위해 및 불법 제품의 시장진입 원천차단	환경부 공정위	'21 ~ '25
2. 시중 유통제품의 감시체계 강화	환경부 관세청	'21 ~ '25
3. 소비자 사고 예방 및 피해 대응체계 구축	환경부	'21 ~ '23
4. 불법 제품 감시 및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	환경부	'21 ~ '23
전략 ④ 안전관리 기반 확립		
1. 화학물질·제품 관리 전문기관 등 관리역량 강화	환경부	'21 ~ '25
2. 화학제품 통합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	환경부 중기부	'21 ~ '25
3. 대국민 제품정보 제공 확대 및 소통·협력 다각화	환경부 교육부	'21 ~ '25
4. 생활화학제품·살생물제 안전관리 기술개발	환경부	'21 ~ '25
5. 관계기관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	환경부 외교부	'21 ~ '25